조계종,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 가능"

민추본, 12월 4일 간담회
사업 협조 요청 사실 공개

금강산관광 20주년행사 기해
北 신계사 관리 상태 점검
조불련에 지원 메시지 전달
내년 3월 사업 가시화 목표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조계종 민추본 본부장 원택 스님(오른쪽)이 조불련 소속 신계사 주지 진각 스님(왼쪽)과 신계사 경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민추본

조계종이 조불련에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부에 제시한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내년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12월 4일 기자들과 만나 "조선불교도연맹 측에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협조요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18~19일 북한서 금강산 관광 20주년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한 총무원 사회부장 덕조 스님, 민추본 본부장 원택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은 이 자리서 신계사 근황을 전하며 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북사업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했다.

이번 금강산 신계사(주지 진각) 방문은 2015년 10월 신계사 복원 8주년 남북공동법회 이후 3년만이다. 본부장 원택 스님은 "방북 이틀째 신계사 전체를 세심히 살피고 주지 진각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며 "3년 전 확인한 것보다 건물 내외 모두 상태가 개선됐다. 스님 등이 상주하며 자체적으로 꾸준히 관리 보존해 우려한 것과 달리 낙관적"이라고 전했다.

일부 기와의 부분 손상 등 약간의 보수는 필요하지만, 별도의 시설 건립 없이도 템플스테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민추본 측 입장이다. 실제로 제정 스님 등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신계사 내 요사채에 50명 이상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 14개를 파악했다.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원택 스님이 조불련 소속인 진각 스님을 통해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사항을 파악해 지원 요청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강수린 조불련 중앙위원장에게 조계종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원행 스님 친필 메시지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식수, 전기, 추가 보수용 자재 등 공급을 위해 민간교류가 선행돼야한다는 문제가 남았다고 민추본은 덧붙였다.

종단은 금강산 신계사를 중심으로 대북불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추본은 "신계사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유물 제자리찾기 등을 계속하는 한편 표훈사 등 내금강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며 "내년 3월 북미회담 이후 정세에 따라 사업이 보다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환아 치료중단 막은 익명의 불자 선행 '훈훈'

익명의 불자모임이 경제적 문제로 치료 중단 위기에 처한 환아를 위해 보시행을 행해 미담이 되고 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1월 29일 서울원자력 병원에서 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 후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홍보대사인 배우 김하영,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환아 및 보호자가 참석했다.

해당 기금은 익명의 불자 모임이 생명나눔에 기부한 것으로, 기부모임은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불자들의 친목모임을 통해 장시간 모아온 돈으로 알려졌다. 기부자들은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익명처리를 부탁하고, 전달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선정환자인 백지현(여 · 14세) 양은 골형성 부전증이란 골격계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 익명의 기부자들은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 생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해왔다"면서 "아이의 성공적인 치유를 위해 모일 때마다 기도할 것"이라 전했다. 김지원 기자

조계종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 성료

중앙신도회 12월 4일
수도권 지역교구신도회 간담회

탈 종교화 현상서 신도 역할
교구 신도화 활성방안 모색
신도회간 네트워크 추진 초점



중앙신도회는 12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수도권 교구신도회 간담회를 끝으로 2018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교구신도회 간담회서는 신도회별 네트워크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주관하는 '2018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가 12월 4일 수도권 교구 간담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수도권교구신도회 간담회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신도조직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법문과 함께 점점 심화되고 있는 탈종교화 현상에서의 신도 역할과 교구신도회의 활성화 방안 등이 모색됐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그동안 권역별 간담회를 통하여 각 교구별 상황이나 지역이 갖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신도회 운영사례나 사업 등을 공유하며 정보교류의 협력체계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교구신도회 간의 꾸준한 소통과 교류를 당부했다.

2부에서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前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정연만 중앙신도회 부회장이 현안에 대한 정부와 종단의 입장과 향후 예상 방향 등을 설명했다.

또 9개 교구 신도회 대표자를 중심으로 신도회 운영 및 사업계획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회향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측은 "4년째 이어온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는 2015년 전국 24개 교구신도회 완결을 계기로 시작하여 그동안 교구신도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16일 광주 무각사 불교대학에서 약 100여명의 교구신도회 임원 및 말사신도회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20일 대구 팔공산온천관광호텔에서 영남지역 신도회 대표자 및 임원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 신도조직 현황 공유 및 신도회 중점 사업소개, 교구별 활동 공유와 토론 등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김석종 불교호스피스협회 제주지부장

"제주하면 '호스피스' 떠오르도록"



김석종 제주지부장이 호스피스 환우들을 돌보고 있다.

김석종 불교호스피스협회 제주지부장은 제주도에서 '호스피스'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이다.

그가 호스피스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2001년 조계종 관음사 부설 불교문화대학을 2기로 졸업한 그는 '제주목탁소리'라는 신행단체를 결성해 매월 제주도 사찰순례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그는 정토마을에서 불교호스피스 교육 19기를 졸업한 이에게 소개를 받아 2005년 21기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21기 수상스님과 '바라밀호스피스'를 창립해 제주불교자비원, 태고원, 인효원, 제주의료원 등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제주관음호스피스회를 창립해 불교자비원과 태고원, 정효원, 제주대병원 암병동 등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제주에서는 제주관음호스피스와 제주바라밀호스피스 두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며 "불교계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데 호스피스가 가장 적합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한 어르신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뇌수술 후 사경을 헤메는 상태에서 한 환우분이 고통 받고 계셨습니다. 삶에 대한 끈을 놓치 못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어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올리니 신기하게 표정이 평온해 지셨어요. 그 후 이틀 뒤 운명하셨는데, 편안하게 운명하셨습니다."

김 지부장은 "이처럼 호스피스활동을 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죽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맞을 것인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제주에서 불교호스피스는 저변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5년 불교호스피스 시작
제주관음호스피스회 창설
"불교사회적 역할에 적합"

김 지부장은 "제주도에서 호스피스를 시작한지 오래됐지만 현실은 여러 어려움이 많다"며 "그 이유로는 불교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낮아 인적자원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활동대상 시설에서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 낮아 활동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제주하면 호스피스가 떠오를 정도로 열심히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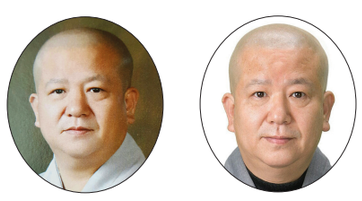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대체의학인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불전부·아함부·반야부
법화부·화엄부·정토부
붓다의 가르침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불전부 · 아함부 · 반야부 · 법화부 · 화엄부 · 정토부의 순서로 진행될 육부 경전 정선본은 병고 고익진 교수님께서 정선하시고 최봉수 교수님이 번역했다. 이 정선본의 강독은 매년 32강씩 7년에 걸쳐 이어질 계획이니, 많은 불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걸으며 부처님과 호흡을 함께 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 개강 : 2019년 1월 8일(화) 오후 7시 (2개월)
● 제1강(오후 7시) ● 제2강(오후 8시 20분)
● 내용 : 아함부 2 육육법설 법문(16강)
● 과정 : ● 아함 1 : 십이처 십업설 법문(16강)
● 아함 2 : 육육법설 법문(16강)
● 아함 3 : 오온 · 사제설 법문(16강)
● 아함 4 : 12연기설 법문(16강)
● 강의 : 최봉수 교수
● 장소 :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 문의 : 02)732-1206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732-1207 www.dongsanbud.net